



전북은행, 남원시에 '딸에게 보내는 선물' 기탁

남원시는 전북은행이 지난 22일 시를 방문해 '딸에게 보내는 선물' 구러미를 기탁,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에게 보건위생용품 10박스(생리대 5종, 청결티슈, 퍼우치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북은행 박운영 지점장은 "지역사회에 한 구성원으로서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이에, 최경식 시장은 "전북은행의 따뜻한 기부는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우리 지역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희망을 전하는 뜻깊은 나눔이었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협력하여 소외된 이웃 없이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남원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은행, 무주군에 보건·위생용품 110박스 기탁

(주)전북은행이 지난 23일 무주군 여성 청소년들을 위한 보건 위생용품 110박스(275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

지역사회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한 것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무주군 지역 내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에 전달될 예정이다.

국중민 전북은행 지점장은 "지역을 대표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지역과 주민을 위한 일에 언제나 솔선수범하고 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상생 나눔 실천을 목표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은행, 진안군에 '딸에게 보내는 선물' 기탁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23일 청소년의 달을 맞아 진안군 관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큰 복지사각지대 및 저소득가정 여성청소년을 위한 '딸에게 보내는 선물(보건위생용품)' 100상자(300만 원 상당)를 진안군에 기탁했다.

이날 진안군청에서 가진 기탁식에는 주영환 부군수와 강태호 전북은행 진안지점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강태호 전북은행 진안지점장은 "딸에게 보내는 선물이 진안군의 여성청소년들에게 작은 기쁨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영환 부군수는 "청소년이 우리 지역의 미래다. 전북은행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린다.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은행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으로 '딸에게 보내는 선물' 사업을 2020년부터 6년째 실천해오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대신신재생산업, 용지면에 1100만원 상당 상품권 기탁

김제시 용지면 행정복지센터는 (유) 대신 신재생산업(대표 김동수)이 기정의 달을 맞아 지난 22일 후원금 1,100만 원을 김제시립상품권으로 구입해 용지면 다문화가정 22세대에 지정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식은 문화와 언어의 차이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여성과 그 자녀们이 보다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각 가정에는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전달됐으며, 이는 다문화가정에 실질적인 생계 지원과 정서적 응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수 대표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다문화가정이 이웃과 함께 온정을 나눌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지속적인 나눔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박현자 용지면장은 "다문화가정을 향한 따뜻한 관심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Save the World · 어머니의 사랑을 온 세상에

위러브유, '어머니 마음'으로 도시숲 조성... 전주 건지산 산책로에 이팝나무 기증·식재

국제위러브유운동본부(회장 장길자, 약칭 위러브유)가 '지구의 날(4월 22일)'과 '생물다양성의 날(5월 22일)'을 기념하며 전 세계에서 '맘스가든(Mom's Garden) 프로젝트'를 전개했다. 맘스가든 프로젝트는 어머니 마음으로 세계 곳곳에 나무를 심어 온실가스를 줄이고 지구촌 가족의 터전을 보호해 행복한 미래를 구현하는 취지의 환경활동이다.

전주에서는 지난 22일 건지산 산책로 입구 100미터 구간에 이팝나무 21그루를 심어 녹지공간을 조성했다. 이번 식수 장소는 건지 유아숲체험원 갈목으로, 앞으로 자라날 나무들이 무더운 날씨에 이용객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러브유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히 나무 한 그루를 심는 것을 넘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사회에 생생력을 불어넣는 의미 있는 실천"이라며 "작은 행동이지만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할 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 앞으로도 지역환경을 살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데 앞장하겠다"고 밝혔다.

전주 일대 회원 130여명이 이날 활동에 참여했다. 회원들은 팀을 나눠 나무를 정성껏 심었고 주변을 돌며



환경정화 활동도 진행했다. 여러 명의 봉사자들이 함께 춤을 잡고 뿌리를 정돈하며 구덩이에 옮겨 심는 모습이 장관을 이뤘다. 무게와 크기가 상당한 만큼, 호흡을 맞춰 나무를 심는 봉사자들의 모습에서 진심과 정성이 느껴졌다. 이날 식재된 이팝나무는 키가 10미터 이상 크게 자라는 교목으로, 매년 5월이면 하얀 꽃이 만개해 산책길을 더욱 아름답게 만든다.

/김재훈기자



개그맨 김범준, 남원시에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남원시 관계자가 시 흥보대사 김범준(SBS 특별·MBN 공동 개그맨)씨가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남원시는 기부자가 자신의 기부금이 사용될 특정사업을 선택해 기부하는 지정기부제를 도입하여 2020년 남원 인재학당 기자재 구입 지원을 목표로 모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범준씨는 "여사 깊은 전통문화예술의 도시 고향 남원을 놀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고향을 생각하면 힘이 난다며, 고향 빛전에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기부에 참여하겠다"라고 전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고향 일이리면 언제든 달려와 주는 김범준씨의 열정과 애정에 감사하고 큰 힘이 된다며, 기탁해준 소중한 마음은 남원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농협은행 전북본부, 군산푸른솔초에 'NH그린액션' 제13호 실시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성훈)는 23일 군산푸른솔초등학교에서 실천하는 기후행동으로 건강한 지구 만들기에 동참하는 NH그린액션 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원천연 군산시지부장, 정혜영 군산푸른솔초등학교장, 박정희 전북도의원, 이성기 군산교육장, 안소라 세이브더칠드런 전북어동권리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NH그린액션 제13호 협판식을 갖고, 학교에 전환경 우전 우산 50개와 우산거치대, 업사이클링 양말 200켤레 등을 전달했다.

NH그린액션은 기후위기와 탄소배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농협은행전북본부와 세이브더칠드런이 함께 실시하고 있는 전북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이 교실 내 비치된 폐플라스틱 수거함에 분리배출을 실천하고, 이것을 업사이클링하여 인천우산과 양말 등으로 제작 후 학교에 다시 전달된다.

군산푸른솔초 학생들은 업사이클링 양말 200켤레에 정성



으로 쓴 손편지를 담아 군산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하여, 나눔의 행복을 더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원천연 지부장은 "여러분이 지난 몇 주간 해왔던 작은 실천이 지구에 큰 힘이 되었다"며, "우리가 함께 지킨 자연이 여러분들의 더 큰 놀이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오상근기자



진안군 부귀면, 농번기 농촌 일손돕기 추진

진안군 부귀면(면장 조봉진)은 지난 22일 군청 건설교통과와 환경과 직원 20여명과 함께 농번기 맞아 인력이 부족한 농가를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다.

이날 직원들은 부귀면 인삼 재배 농가를 찾아 인삼밭 제거 작업에 일손을 보탰다.

일손돕기 지원을 받은 김동근(57)씨는 노모를 봉양하며 출사를 한지 얼마안 된 배우자와 함께 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으로 "농사일이 딱딱했는데 덕분에 한시름 덜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조봉진 부귀면장은 "이 기회를 통해 봉사정신을 다시금 일깨울 수 있었다"며 "농민들의 이야기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기자

정읍 공직자 청렴퀴즈 대결... 기획예산실·시민소통실 우수 성과

정읍시가 공직자들의 청렴 역량을 높이기 위해 참여형 퀴즈 방식의 '청렴골든벨'을 개최하며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에 힘을 실었다.

시는 지난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리의식 고취와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골든벨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주요 반부패 법령을 참여형 퀴즈 형식으로 풀어보며 실현성과 흥미를 동시에 높였다.

특히 무선 리모컨 방식의 스마트 퀴즈 시스템을 도입해 실시간으로 문제를 풀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현장 몰입도가 높았고, 부서별 응원전까지 더해져 조직 간 유대감도 강화됐다.

이날 대회에서는 기획예산실 최지훈 주무관이 최종 우승을 차지했고, 2위는 시민소통실 박승연 주무관, 3위는 회계과 정원희 주무관이 수상했다.



응원 부문에서는 시민소통실과 상교동이 응원상을 공동 수상해 청렴 실천 의지뿐 아니라 조직의 화합과 열정도 함께 인정받았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시 건설과, 공덕면 육묘장서 농촌일손돕기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건설과 직원들이 지난 21일 영농철을 맞아 공덕면 송정면을 육묘장을 방문해 육묘장 나르기와 육묘장 주변 환경정화 활동 등을 함께 하며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힘을 보탰다고 밝혔다.

이번 일손돕기에 참여한 건설과 직원들은 자체적으로 작업 도구와 도시락을 준비하여 농가의 부담을 덜고, 육묘장 작업을 도우며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육묘장 농가주는 "일손이 부족했는데 공무원들이 직접 찾아와 일손을 보태줘 큰 도움이 됐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명준 건설과장은 "최근 농촌의 고령화로 일손 부족은 물론 인건비 상승으로 농가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 운봉읍 지사협, 다온식품에 착한가게 현판 전달

남원시 운봉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읍장 이은주, 민간우원장 신동열)는 1일 1가구 소통행정의 일환으로 착한나눔 정기 기부에 참여한 다온식품(대표 장명관 이영미)을 방문해 현판을 전달했다.

장명관 대표는 "소액이지만 우리 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에 이은주 운봉읍장은 "지역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도 소외된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감사드린다. 소외된 이웃을 위해 운봉읍 착한가게가 더욱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진안군 안천면, 일손 부족 농가 돋기애 구슬땀

진안군 안천면(면장 차재철)은 23일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인력 수급문제 해소와 봄철 영농기의 안정적 영농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농촌 일손돕기'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일손돕기는 지난 5월 16일 1차에 이어, 군청 행정지원과 직원 6명과 안천면 행정복지센터 직원 11명이 함께 참여하여 사과 적과작업을 진행했다.

해당 사과농가는 2023년 사과 생육기 우박피해와 금년 개화기 냉해를 입은 농가다.

이날 일손돕기에 나선 직원들은 사과 적과작업과 농가에 조급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때이른 더위에도 구슬땀을 흘리며 작업을 진행했다.

일손을 지원받은 농업인 김씨는 "연이은 자연재해로 경영이 어려웠는데, 적과기 일손도 구하기 힘들다"며, "하루하루 일손이 부족해 애가 타는 농촌의 현실에서 대민지원을 나선 진안군 관계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기자